

2025 새해 이렇게 김철우 보성군수

# “군민행복 최우선...춤춤한 돌봄 ‘복지 600’ 실현 가속”



###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운동처방 군민 건강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300억원 규모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군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이는 보성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은 보성군이 새로운 대도약을 이루고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보성군은 이를 위해 ▲소의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행복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산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군정 핵심 5대 목표를 내놨다.

김 군수는 먼저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행정 분야에서 출생 기본 수당 신설로 1세부

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이후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군민 건강강좌, 단계적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보성군민의 대표 브랜드인 보성 600 사업은 복지, 소통, 문화, 산림 분야를 넘어 건강 600을 새롭게 선보이며, 군민의 삶 전반에 걸친 춤춤한 돌봄을 실현한다.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산업 육성 분야는 혁신적인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도전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대상 연구모임, 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다. 고품질 프리미엄 가우차 생산을 위한 첨단 가

공 살균 시설을 도입해 국내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 보성 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보성 키위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마무리해 보성의 신성장 동력을 완성한다.

국가어항 예비 대상으로 선정된 울포항 개발에 총 451억원을 투자해 현대적이고 안정적인 어항 기반 시설 확충하고, 울포 프롬나드 조성,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신(新) 남해안 관광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 관광 중심지로 도약한다.

그는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과 관련 “보성군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활력 넘치는 삶을 선사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소년소녀가장단을 창단하고, 보성의 랜드마크 열선루에서 이순신 장군의 국극정신을 담은 제1회 보성 열선루 축제를 비롯해 국가유산 야행 등 보성의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를 담은 행사를 개최한다.

생활권 힐링 공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성을 보라색 유채단지길, 벌교읍 주민 생활 밀착형 숲, 건강 쉼터를 조성해 군민이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김 군수는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분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300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벌교 공용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보성을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올해 상반기 공급이 시작된다. 보성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9월, 벌교읍 문화복합센터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진입부 4차로 확장 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정진하겠다”라면서 “보성살기 참 잘됐다, 나 보성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 햇볕 데임 피해 배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ha당 100만원 2월까지 지급

광양시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과 이상 고온 현상으로 햇볕 데임(일소) 피해가 발생한 배 재배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총 2000만원(전남도 50%, 광양시 50%)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폭염(고온)일수는 2023년 및 평년 폭염일수의 3.5배~4배인 33일을 기록했다. 배에 쬐우는 봉지가 온실 효과를 냈고, 과도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빛과 열에 의해 과실 세포가 변질되는 일소 피해가 발생했다.

배 재배 특성상 봉지 안을 확인하기 어려운 까닭



햇볕 데임(일소) 피해가 발생한 배.

에 수확 후 선별 및 보관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전라남도도와 도내 시군이 재해인정, 정책

자금 상환 연기, 이차 감면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섰다.

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배를 1000㎡ 이상 재배한 농가로, ha당 100만원(광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오는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화기 이상 저온, 태풍 등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고, 작년은 일소 피해까지 발생해 배 재배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자금 지원이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구례군 새해 ‘군수와 함께하는 구들장 대화’

### 다음달 7일까지...156개 마을 순회

구례군이 을사년 새해부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군수와 함께하는 구들장 대화’를 추진하며 발로 뛰는 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들장 대화’는 김순호 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마을회관·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세배를 올리고, 마을 건의 사항과 군정 제안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구들장 대화는 내달 7일까지 8개 읍면의 156개 마을을 군수가 직접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들장 대화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즉시 민원과 현

장점검 처리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첫 구들장 대화가 열린 토지면에서는 ‘구만 송림 내 주민 및 관광객의 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설치’와 ‘피아골 브랜드 조형물 및 단풍공원 액티비티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이는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현안들을 건의한 것으로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형해 군민 대화를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구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 기공식이 지난 14일 소리면 죽림리 산들공원 부지에서 정기명 시장, 국회의원, 사·도의원과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수시 제공)

## 여수 최초 어린이도서관 ‘첫 삽’...내년 개관

### 130억 투입 소리면에 3층 규모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하 어린이도서관)’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여수시는 지난 14일 소리면 죽림리 산들공원 부지에서 정기명 시장, 국회의원, 사·도의원과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도서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어린이도서관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2824㎡ 면적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내년 완공되면 여수시에서는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 탄생하게 된다.

세부시설로는 영유아자료실·어린이자료실·종합

자료실·공동육아나눔터·동백마루·북카페·인형극장·육상데크 등이 들어서며, 소통과 휴식이 공존하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는 지난 2023년 전국 공모를 통해 명칭을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이날 기공식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며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아이들을 지원하고 아동친화도시 여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산 미역 부산물 일본 건너가 도시락 용기로 재탄생

### 600만달러 수출협약...10t 상차식

고흥에서 채취된 미역 부산물이 일본으로 건너 도시락 용기로 재탄생한다.

고흥군은 지난 14일 영어조합법인 바다광해초량에서 미역 부산물 일본 수출을 위한 상차식을 열었다.

〈사진〉

지난해 3월 고흥군, 고흥군수협, 톱슨이 체결한 600만달러 규모 수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10t이 처음 수출길에 올랐다.

일본 도쿄에 있는 업체 톱슨은 고흥 미역 부산물을 친환경 도시락 용기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바다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뿌리, 줄기 등 미역 부산물을 활용해 어민 소득을 높이고 친환경 자원화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고



흥군은 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활용 가치가 없었던 미역 부산물 수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게 됐다”며 “풍부한 수산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kwangju.co.kr

## 순천시 “독감 접종 하세요” 어르신·고위험군 대상 권고

순천시가 최근 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 건강한 설을 맞이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따르면 최근 9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1주차(2024년12월22일~2025년1월3일)에 1000명 당 99.8명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바이러스의 두 가지 유형 A(H1N1)와 A(H3N2)이다. 이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진행 중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화염사 브랜드 천연 화장품 4종 출시

### 화장품 회사와 협업 연구·개발

국내 대표적 명찰인 구례 화염사의 컨셉트를 활용한 제품이 음식에 이어 화장품까지 출시돼 화제이다.

화염사 홍보기획위원회는 국내 천연화장품 브랜드 회사 ‘프랑스와즈’와 협업해 화염사의 상징인 홍매화를 컨셉트로 활용한 화장품 4종 세트를 국내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랑스와즈 송병규 대표는 “이번에 출시된 화장품은 지난해 화염사와 업무협약 이후 6개월의 연구 끝에 선보이게 된 천연 성분과 유기농 함량을 높인 고품질 화장품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염사는 지난해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냉동김밥 업체 ‘올리’와 손잡고 생산한 ‘템플김밥’과 ‘비건 버거’ 등 식품에 이어 화장품에까지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이같이 국내 시찰이 기업과 함께 절의 이미지를 담은 상품을 제작한 것은 국내에서 화염사가 처음이다.

이번에 출시된 화장품은 딤플렌징 오일, 유기농

광채 볼륨 미스트, 유기농 로즈워터 히알루론산 스킨, 유기농 광채 볼륨 에센스 4종 세트이다.

송 대표는 4종 세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딤플렌징 오일은 모공 깊숙이 클렌징 및 영양을 공급하고 천연함량 83%·유기농 함량 47%로 구성됐으며, 유기농 광채 볼륨 미스트는 피부를 정돈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천연함량 97%·유기농 함량 51%로 구성됐다. 또 유기농 로즈워터 히알루론산 스킨은 천연 함량 95%·유기농 함량 82%에 달하며,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유기농 광채 볼륨 에센스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천연함량 95%·유기농 함량 66%로 구성됐다.

송 대표는 “앞으로 국내 출시 상황을 지켜본 후 호응이 좋으면 해외 수출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기흥 화염사 홍보기획위원장은 “화염사의 상징인 홍매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부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